순천 아파트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기업유치·개발 붐…중·소형 2천~3천만원⬆

주거 여건도 좋아 웃돈 주고도 구하기 힘들어

기업 입주와 각종 개발 붐으로 순천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기가 활발한데다 공급도 적어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순천지역의 경우 올 들어 아파트 매매와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조례동과 연향동 등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의 32평(10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되고 있고,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도 아파트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향동 K공인중개소 A 대표는 "외지인들이 투자 보다는 주거 개념으로 24평(79㎡)과 32평 아파트를 구하고 있어 중·소형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며 "매매가격도 32평의 경우 지난해보다 2천만~3천만원 가량, 24평은 2천만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순천지역은 지난해 말 매곡동 재개발사업으로 800여 가구가 조례동과 연향동 등 신도심 아파트로 이주한데다 최근 율촌산단에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물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인근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양호한데다 백화점과 마트, 극장, 외식업체 등 생활여건이 좋아 거주지로 각광 받고 있는 점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공급 물량도 36평(118㎡) 이상이어서 중·소형 아파트 부족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수시도 개발 기대심리로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GS칼텍스가 3조원대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레저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어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시 오천 지방산업단지내 한 업체에 있는 종려나무 꽃이 활짝 폈다. 매년 4~6월에 노란꽃을 피우는 종려나무는 여수지역 곳곳에 심어져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이국 정취 물씬 종려나무꽃 활짝

여수시-조선대 '엑스포 성공 개최' 협정 체결

여수시와 조선대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여수시와 조선대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현섭 여수시장과 전호종 조선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조선대 교류협력 협정서' 체결식을 갖는다.

이번 교류협력 협정을 계기로 양 기관은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자원봉사 및 통·번역 인력지원을 비롯해 박람회 관련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양성과 학술연구 등 관학협동 연구사업, 기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한편 체결식후 조선대 관계자들은 2012년 세계박람회장 예정 부지인 덕충동 일대를 방문, 엑스포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밀떡 구워먹기·밀밭걷기…

24일 '순천 우리밀 축제'

제 6회 순천 우리밀 축제가 오는 24일 순천시 교량동 상하수도 사업소 운동장과 인근 밀밭에서 열린다.

이날 축제는 먹을거리 장터와 문화공연, 추억의 밀 서리, 밀떡 구워먹기, 밀밭걷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꾸며진다.

순천시는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4천만~5천만원을 재배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밀 축제도 열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시 자문委, 엑스포 앞두고 지역 여론 분열 우려

"市 통합청사 건립 주장 자제해야"

여수시 자문위원회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 통합청사 건립 주장과 관련해 자제를 촉구했다.

전·현직 기관장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2012 세계박람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통합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집회 등이 계속되고 있어 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결집된 역량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여수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다 줄 박람회 준비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각종 기반조성 사업과 병행해 시민의 화합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998년 여천시와 여천군, 여수시 등 '3여'가 여수시로 통합할 당시 청사를 현재의 학동 청사(옛 여천시청사)로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오현섭 여수시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청사는 학동 청사, 여서동 청사(옛 여수시청사), 돌산 청사(옛 여천군청사) 등 3곳에 분산돼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본부장	김동호
	지광현 차장(보성)
고흥주재	주각중 부국장
여수주재	박양규 부장
순천주재	김진수 차장
광양주재	김춘호 차장

고흥 동강에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장덕리 일대 76억 들여 유자·김·콩 등 가공 제조

고흥군 동강면에 친환경 농공단지가 들어선다.

고흥군은 동강면 장덕리 일대 14만1천㎡에 76억원을 들여 유자와 김, 콩 등을 가공·제조하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수축산물을 가공·제조 업체들이 입주하는 이 단지는 내년말 완공된다.

특히 동강 농공단지는 주변 여건과 조화가 되도록 완충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다.

군은 최근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주민설명회와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하반기 토지보상과 함께 착공하기로 했다.

동강 농공단지가 가동되면 20여개 전문 가공업체가 입주해 3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38개 농공단지가 가동중이며 가동률은 92% 수준으로 1만1천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광양·여수항 야간 선박 운항 규제 폐지

여수항만청, 13개부두 2012년까지 시설공사

광양항과 여수항의 선박 야간 운항 금지 규제가 오는 2012년까지 폐지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광양항과 여수항의 29개 부두 중 13개 부두에 적용되던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항 금지 규정을 오는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광양항과 여수항 13개 부두는 시설미비와 항로폭 협소로 야간운항이 금지돼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2년까지 야간에도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13개 부두의 시설공사에 착수한다.

부두시설이 확충되면 야간 운항 금지 규제가 해제되면 광양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